지역 소식통

고창 농특산품 대만 백화점 3개소 판촉행사

고창군이 대만 신광 미츠코시 백화점 3개소에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고창 배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고창 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성장하여 모양이 고르고 품종 고유의 향이 살아있고, 껍질이 얇고 과육이 연하며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2003년도부터 수출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미국, 대만, 베트남 등에 수출을 진행하여 한국 배의 위상을 알려왔다.

올해 대만에 수출 물량은 81톤(약 2억원)이며, 앞으로 추가 수출을 통해 약 4억원의 소득창출이 예상된다.

고창군은 판촉행사 이외에도 현지유통업체 및 시설방문, 해외바이어 간담회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고창군 관계자는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식품의 인지도가 높아져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현지인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동남아시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차별화 나서

고창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답례품 모색에 나섰다.

지난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3) 고창지역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고창황토배기유통(꾸러미선물세트)을 비롯해 , 힐링카운티(숙박권), 웰파크시티(석정온천 이용권), 토굴발효영농조합법인(마을치유프로그램투어), 꽃피는영농조합법인(책마을해리체험) 등 37곳이 참여했다.

군과 업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초기 50여일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부제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력있고 특색있는 킬러 답례품 개발 필요성을 공감했다.

군은 답례품 공급품목과 공급업체 확대계획를 설명하며, 3월중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봄맞이 답례품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도시 지정

정읍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 미생물 분야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 종합 지원

정읍시가 그린바이오 산업 미생물 분야의 거점도시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바이오 분야를 지원해 2027년까지 산업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기술(BT) 등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6대 분야로는 미생물, 종자,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꼽는다.

농식품부는 정읍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를 6대 분야 중 미생물 분야의 산업 거점으로 지정하고, 그린바이오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읍시와 함께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미생물 소재·제품의 안정적인 대량 공급과 제품의 표준화 지원에 필요한 온실, 시험포장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또 유용 미생물 효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제형화 시설을 구축하고, 미생물 제품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미래주도형 유용 미생물 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용 미생물 센터는 국내 미생물 신산업 육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앞으로 미생물 산업의 종합적 육성·지원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참여사업 발굴·주민 의견 청취

정읍천-정읍역 연계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정읍시가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연지아트홀에서 이학수 시장과 관계 전문가, 시민,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 추진에 앞서 시민들에게 추진 배경과 기본구상,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해 지역민 주도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설명회에서 시는 용역보고회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미로분수 설치사업 등을 설명한 후,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화장실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과 정읍역 지하차도 복개 후 그 공간에서 상시적인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당일치기로 즐기고 가는 것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게스트하우스와 캡슐호텔 등과 연계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방문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정읍만의 색깔을 지닌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유했다.

시는 제시된 의견은 관계 부서와 세밀하게 검토 후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읍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개선함은 물론,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으로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자연재해 걱정 덜 수 있도록 공사 만전 기할 것"

심덕섭 고창군수, 지방하천 정비사업·자연재해위험지역 공사 현장 찾아

심덕섭 고창군수가 "군민들이 자연재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위험지역을 살피고, 관련 공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23일 오후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역 공사 현장을 찾았다. 심 군수는 공음면 칠암천, 아산면 주진천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상황을 보고를 받았다.

칠암천, 주진천은 축제·호안 정비와 교량 건설 등이 진행 중이다. 현재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24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후 심원면 해리천 배수펌프장 건설현장과 공음면 장동천 축제·교량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돼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주변 농경지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과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한 재해취약지역을 조기 해소하겠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개장

부안군 선은리 군민체육센터 시설 옆 부지에 부안군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3월 1일 개장한다. 총면적 800㎡에 천연잔디, 휀스, 놀이시설(허들, 구름다리) 설치와 주변의 경관을 위해 느티나무 7그루도 식재하였다.

또한 안전을 위해 놀이터 내 중심부에 중앙 분리 휀스를 설치해 대형견의 개물림 사고를 사전 예방과 이용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도록 놀이터 내부와 입구에 벤치 및 차양시설도 함께 마련하였다.

해당 놀이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월·화요일은 휴무할 계획이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내장형)한 반려견과 13세 이상의 반려견 주인이 함께 입장하여야 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입장 및 퇴장할 때 반려동물에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놀이터 내에 배변 봉투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오범 부안군 축산유통과장은 "놀이터 개장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반려동물 쉼터 제공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되며 반려동물과 이용객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강남지구 상습침수지역' 해결 나서

고창군 아산면과 무장면민들의 숙원인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본격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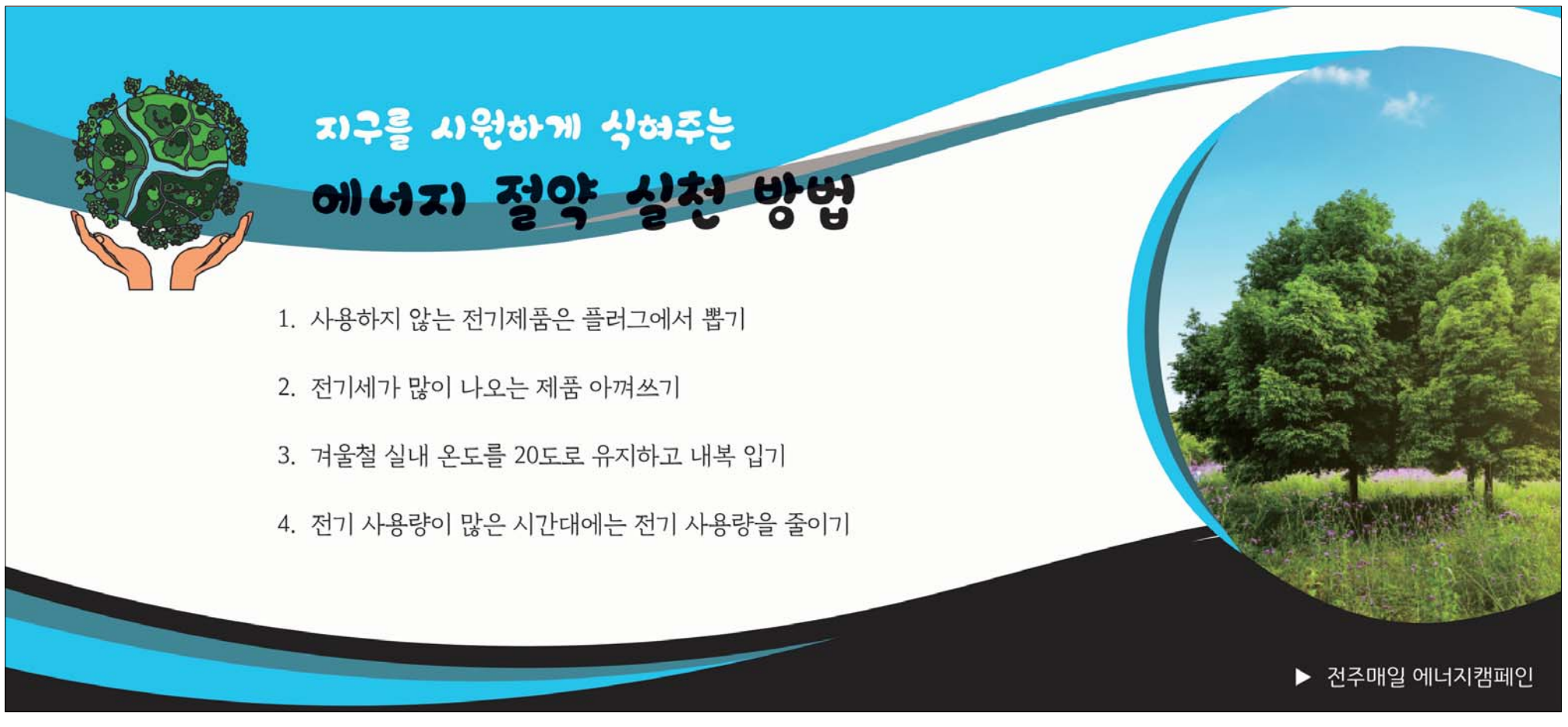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아산면 용장마을에서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강남지구는 주진천과 강남천이 합류되는 지점(106.7ha)을 말한다. 아산면 4개 마을(대동, 주진, 목동, 남산리)과 무장면 목우리 일원이 영향권이다.

이곳에 배수문 3개소를 신설 및 확장하고, 4.6km의 배수로를 만들고, 9.8ha에 지대를 높인다. 총사업비는 98억 5300만원(국비)이다.

군은 3월부터 실시계획 승인관련 농림부와 협의를 진행, 4월중에는 공사가 발주돼 빠른 시일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주민설명회에는 고창군 나철주 건설도시과장, 김완철 아산면장, 마을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강남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시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